

기장 장안리 상장안 자기요지의 편년 연구

허 선 영*

〈목 차〉

- I. 머리말
- II. 상장안 요지의 개요와 도자편 분석
- III. 상장안 요지 도자편의 특징
- IV. 편년유물을 통해 본 제작시기의 검토
- V. 맺음말

국문요약

부산광역시 동북쪽에 위치한 기장군에서 도예촌 조성과 관련하여 2007년 2월부터 7월까지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 장안읍 일대를 중심으로 모두 7개 지점에서 도요지 관련유적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장안리 상장안 자기요지는 ‘蔚山長興庫’, ‘耕負祭’ 등의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와 炙樛·회준·보·고죽배와 같은 제기가 발견되어, 『경상도속찬지리지』 울산군에 기록된 도기소·자기소에서 하품을 생산하던 장안리현으로 추정된다.

요지는 후대의 인위적인 훼손으로 가마 유구의 현상 파악은 어려우나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다량의 도자편 분석을 통해 이들 유적에 대한 편년연구가 가능하며, 부산·경남지역 도자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장안리 상장안 자기 요지의 제작시기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요지 도자편의 기종과 기형, 문양, 제작수법을 검토해 보았다. 가장 많이 수습된 기종은 대접과 접시이며, 그 외 기타 도자편과 요도구 등도 확인하였다. 문양은

* 한국문화연구원

확인된 도자편의 크기가 대체로 작아 전체적인 문양구성을 살펴는 데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인 문양 구성과 위치에 근거하여 주문양과 종속문양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제작수법에서는 유태와 굽의 깎음새, 번조수법의 양상은 갑번인지 포개구이 번조인지에 대한 여부와 받침은 어떠한 것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장안리 상장안 자기요지는 광주광역시 충효동 요지의 안정된 6개 층위에서 확인된 유물의 양상, 그리고 제기형태의 변화를 통해 제작시기를 판단하였고, 또한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울산군조의 도기소와 자기소 기록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 받았다. 장안리 상장안 자기요지는 1450~1470년대 사이가 요업의 중심시기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제어 : 기장, 장안리, 상장안, 관사명분청사기, 경상도속찬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제기

I. 머리말

지금까지 도자사 연구는 고려·조선시대의 자기 생산의 중심지역에 대한 것으로 초기청자 발생, 강진청자, 도자기소에서 생산되었던 분청사기, 광주의 관요 백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연구 경향으로 인해 지방 도자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0년도를 전후해 경상도 지역 중심연구논문이 몇 편 소개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로 추정되는 지역의 연구가 중심이고, 그 외 고분출토 고려청자와 조선전기 지방백자에 대한 도자사 논문이 있다.¹⁾

이렇게 경상도 지역의 도자사적 성과가 부족한 가운데 지난 2007년 기장군의 도예촌 조성과 관련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²⁾ 이 조사에서 장안읍 일대를 중심으로 모두 7개 지점에서 도요지 관련유적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³⁾ 특히, 장안리 상장안 자기요지(이하 상장안 요지)에서는 ‘蔚山長興庫’, ‘耕負祭’ 등의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와 炙樵·회준·보·고죽배와 같은 제기류가 확인되었고, 또한 상장안 요지는 『慶尙道續撰地理誌』울산군에 기록된 도기소·자기소에서 하품을 생산하던 장안리현으로 추정되었다. 후대의 훼손으로 가마의 현상 파악은 어려우나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다량의 도자편 분석을 통해 이들 유적에 대한 편년연구가 가능하며, 부산·경남지역 도자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판단한다.

본 논문은 기장지역의 상장안 요지의 조업기간과 도자편에 대한 제작시기

1) 전승창, 1996, 『15세기 도자소 고찰-경상북도 상주지역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호암미술관연구논문집』1호, 호암미술관; 심지연, 2003, 『경주 서부동 출토 관사명 분청사기 연구』,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조윤주, 2003, 『관사명 분청사기 연구-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성현주, 2003,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포곡요지의 성격 검토』, 『박물관연구』9호, 부산박물관; 同著, 2006, 『경상도지역 “명문”분청사기 연구』,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경자, 2003, 『14세기 강진 자기소의 해체와 요업체제의 이원화』, 『미술사학연구』238·239, 한국미술사학회, 109~147쪽; 김윤희, 2004, 『경남지방 조선전기 백자연구-하동 백련리 출토 백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상희, 2005, 『고려분묘 출토 녹청자의 편년연구-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 청자요지 2곳, 분청사기요지 1곳, 백자요지 1곳, 옹기요지 2곳과 정관면에서 백자요지 1곳이 조사되었다.(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기장도예촌 조성을 위한 장안읍 일대 정밀지표조사』.)

3) 이후, 부산박물관에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2009년 9월 15일~11월 19일) 전체적인 유물 출토상황은 지표조사와 대동소이하여 기존에 필자가 제시하였던 편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는 가마유구와 폐기장 퇴적층이 확인되어 차후에 보고서가 발간되면 유구와 유물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부산박물관, 2009. 11, 『기장 상장안 도요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 상장안 요지의 잔존상태, 지리적 위치 등을 살펴보고, 요지에서 수습된 도자편의 기종·기형·문양·제작수법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상장안 요지에서 확인된 분청인화과상문‘蔚山長興庫’명접시와 제기의 출현 배경, 용도와 성격 등을 밝혀보고, 또한 주된 문양으로 사용된 파상문이 경상도 지역에서 생산된 명문 있는 분청사기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공간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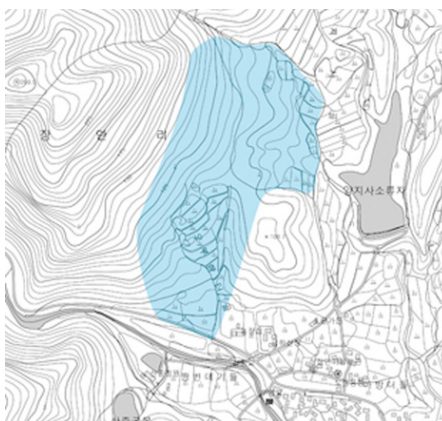
IV장에서는 구체적인 연대를 가진 유물 혹은 안정된 층위에서 확인된 유물과의 비교 분석,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도자편의 양식적 특징과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추정해 볼 것이다.

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II. 상장안 요지의 개요와 도자편 분석

1. 요지의 개요

상장안 요지는 장안읍에서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는 울산 울주군과 인접해 있고, 유적은 상장안 마을을 지나 장안사 방향으로 약 100m 정도 들어가 도로 우측 구릉사면에 위치하며 북서에서 남동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동쪽사면 말단부의 ‘오그랑터골’을 중심으로 넓게 유물이 분포하고 있다.⁴⁾



지도 1. 상장안 요지의 위치

‘오그랑터골’이라는 지명은

⁴⁾ 기장군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장안리 유물산포지G>로 표기된 곳으로 장안읍 장안리 515-1·2, 516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구릉사면을 따라 계단식 논과 민묘가 자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수십 년 전에 이곳에 사방공사를 시행했었다고 한다. 사방공사를 하게 되면 구릉을 계단식으로 굴착하여 수목을 심게 되는데 아마도 이 때 가마가 파괴되어 유물이 아래로 흘러 넓은 범위에 산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릇을 굽던 큰 가마가 다섯 기 있었다’는 것에서 유래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명을 통해서도 이곳에서 요업이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골짜기 주변에는 大雲山(741m)의 끝자락인 해발 100m 내외의 구릉이 이어져 있고, 물줄기는 機張八景 중의 하나인 佛光山의 錦水洞 溪谷과 합류되는 곳이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양지사소류지가 있고 남쪽으로는 동해로 유입되는 장안천이 흐르고 있다.⁵⁾ 따라서 상장안 요지는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풍부한 땀감의 공급이 용이하고, 개천과 소류지가 주위에 위치해 있어 수자원이 확보된다. 그리고 동해로 유입되는 장안천은 생산된 자기를 실어 운반하는 수로의 역할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장안 요지에서는 분청인화과상문‘蔚山長興庫’명접시가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이곳에서 공납용자기가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慶尙道續撰地理誌』⁶⁾ 蔚山郡條에 “陶器所 磁基所 皆在郡南長安里 岬品下”라 하여 도기소와 자기소가 長安에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⁷⁾

기장 상장안 요지에서는 분청인화과상문‘蔚山長興庫’명접시가 수습되는 것은 조선 초의 행정구역과 지금의 행정구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장의 가장 북쪽에 있는 장안은 기장과 울산의 경계여서 행정구역의 변화를 많이 겪었다. 상장안 요지가 위치한 장안읍은 현재 행정구역상 부산시 기장군에 속해 있다. 북쪽으로는 울산과 바로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양산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15세기에 기장이 어떠한 행정적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장안은 고려 성종 2년(983)부터 김해, 양산 등의 영현이 되었고, 현종 9년(1018)에 이르러 울산에 이속되고 기장에는 감무를 두게 되었다.⁸⁾ 임진왜란 후인

5) 황구, 2006, 『기장의 분청사기와 매장문화재 활용 방안』, 『기장의 매장문화재조사사례발표회』, 104쪽.

6) 『慶尙道續撰地理誌』는 睿宗 元年(1469)년에 편찬한 것으로 『八道地理志』의 편찬에 필요한 지방 자료 모음으로 제작되었다. 『世宗莊憲大王實錄』, 『地理志』, 『東國輿地勝覽』과 아울러 분청사기의 생산 상황과 백자와의 관계, 생산 공물로서의 성격, 그리고 분청사기의 도자사적 위치 등을 구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陶器所, 磁器所 기록에는 동·서·남·북의 위치표시 및 上品·中品·下品の 품등표시가 함께 실려 있어 조선전기 도자기 연구의 기초자료로 예전부터 주목되어 왔다.

7) 다만 『慶尙道續撰地理誌』에 기록된 磁基所의 磁基 뜻은 ‘호미, 김멜 때 쓰는 농구’라는 뜻으로 도자기를 생산하여 공납하던 곳의 의미와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慶尙道續撰地理誌』내에서 磁基(농구를 가리킴)를 생산하던 곳은 여기 표시된 이 곳 울산군 뿐이며, 도자기를 공납하던 곳 磁器所, 陶器所에서 ‘磁’와 ‘磁’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예가 많고, ‘基’는 ‘器’자의 오기로 보아 磁基所는 磁器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 울산에서는 磁器所, 陶器所가 운영되어 공납자기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앞의 책, 20쪽.)

선조 32년(1599)에는 기장현이 폐지되고,⁸⁾ 울산군 하미면 1동과 2동이 되었던 기장지역은 광해군 9년(1617)에 기장현으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계속하여 울산관할로 남아 있다. 효종 4년(1653) 당시 기장현감 강유후(姜裕後)의 상소와 경상감사 조계달(趙啓達)의 실정조사 의견서 등에 힘입어 기장현의 중북면과 상북면으로 환속되었다.¹⁰⁾ 그러나 7년 후인 1660년에는 다시 울산의 하미면이 되었다. 숙종(肅宗) 7년(1681) 6월에 현민 대표들의 상소로 또 다시 기장현의 상북면과 중북면으로서 복귀하고,¹¹⁾ 1895년 5월 26일 縣이 郡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장군 중북면과 상북면이 되었다. 따라서 당시 기장현의 북쪽이 울산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환속되는 몇 번의 과정에서 그 경계가 어지럽게 된 것으로 보인다.¹²⁾¹³⁾

2. 도자편 분석

1) 기종과 기형

(1) 일상기명

① 대접

대접은 내저면과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표 1)

8) 『高麗史』卷 57 志 11 地理 2

“機張縣本新羅甲火良谷縣景德王改今名爲東萊郡領縣後移屬顯宗九年又移屬蔚州後置監務別號車城”

9) 『增補文獻備考』卷 17 輿地考 5 機張郡 “宣祖三十二年入東萊光海九年復置縣今”

10) 『孝宗實錄』卷 10 4年 6月 丙申條

“慶尙監司趙啓遠馳啓曰 機張 蔚山 大小甚懸 而蔚山之下未面 卽機張之故地也 割大寡 政所宜先 請從民願 割給 機張 許之”

11) 『肅宗實錄』卷 11 7年 6月 甲辰條

“以蔚山下未面 還屬機張 初 機張合於蔚山 及其復設之際 下未一面混入蔚山境 久未還屬 本縣民人等以邑縮役重 上言訴冤 事下本道 至是本道查啓言 機張只有三面 邑不成形 無以獨當戰船 與彥陽竝定 彥陽亦以殘縣力弊 兩邑之民 交相呼請從其願 以本面還屬機張 仍令獨當戰船 勿與彥陽竝定 備局覆奏 許之”

12) 기장읍지편찬위원회, 2005, 『機張邑誌』, 85쪽.

13)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울산군(治所: 현 울산시 중구 옥교동)은 기장군과의 경계까지 59리이고, 기장현(治所: 현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은 울산군의 경계까지 12리라 하였다. 1리를 약 0.393km라고 계산하였을 때 기장현과 울산군의 경계는 현재 기장군에 속해 있는 일광면과 장안읍의 경계 즈음에 해당하며, 현재의 정관면, 일광면, 장안읍의 일부는 울산군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장현을 보면 동쪽은 해안에 이르러 8리, 서쪽은 양산군계까지 32리, 남쪽은 동래까지 14리, 북쪽은 울산군까지 49리라 하였고, 『慶尙道續撰地理誌』에 임랑포 봉화는 울산 군내 25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임랑포는 현재 기장군 장안읍에 속해 있다. 따라서 지금의 장안 지역은 15세기대 울산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쪽은 울산군과 덕주 고개(지금의 일광면 원동)를 경계로 하고 있다.

먼저 I 형은 내저면이 곡면이고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곡선으로 기면을 이룬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높이는 7~8cm, 구경은 18~20cm, 굽경은 6~7cm가 중심이다. II 형은 내저면이 비교적 편평하고 측사면은 사선형으로 벌어지다가 구연부에서 내만하는 형태이다. 높이는 7~9cm, 구경은 17~20cm, 굽경은 6~7cm가 중심이다.

② 접시

접시는 구연부와 내저면의 형태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표 1)

I 형은 내저면이 곡면식이고 측사면은 완만한 곡선으로 이뤄지며, 구연은 내만하거나 직립한다. 다시 대소에 따라 2가지 식으로 분류하였다. A 식은 높이 5~6cm, 구경 17~20cm, 굽경 5~6cm 이고, B 식은 높이 3~4cm, 구경 14~15cm, 굽경 5cm 내외이다. II 형은 내저면이 곡면식을 하고 측사면은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며, 구연은 외반하는 형태이다. 높이는 3~4cm, 구경은 16~17cm, 굽경은 5~6cm 내외이다. III 형은 내저면은 편평하고, 측사면은 볼륨감 있는 곡선으로 기면을 이루다가 구연부에서 외반하는 형태이다. 높이는 4~5cm, 구경은 12~13cm, 굽경은 5cm 내외이다.

특히, 장안리에서 수습된 접시 중 분청인화파상문‘蔚山長興庫’명접시(접시II형식)는(도 1) 내면에는 중권문으로 문양대를 구획하고, 초문, 파상문, 소국화문+울산장흥고를 시문하였고 외면도 비슷한 양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유물로 현재 부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분청인화파상문‘蔚山長興庫’명접시가 있다. 전체적인 문양의 종류와 구성, 내저면에 새겨진 관사명의 글씨체 등으로 보아 동일한 사람이 그릇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도 2)

또 다른 명문 있는 접시로 분청귀얄‘耕負祭’명접시(접시 I-A형식)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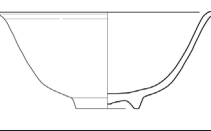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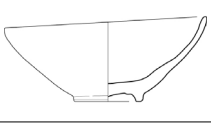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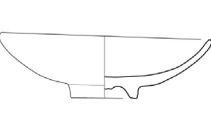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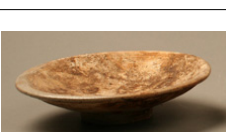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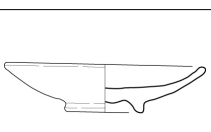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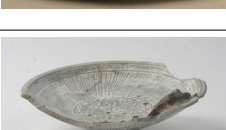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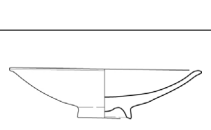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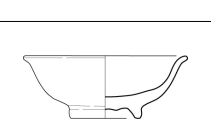


도 1.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 명접시 /상장안 요지



도 2.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 명접시 /부산박물관 소장

표 1. 대접과 접시의 기형 분류표와 특징

기종	기형	사진	도면	특징	
대접	I			내저면 곡면, 볼륨감 있는 기면, 구연부 외반, 높이 7~8cm, 구경 18~20cm, 굽경 6~7cm.	
	II			내저면 곡면, 사선형 기벽, 구연 내만, 높이 7~9cm, 구경 17~20cm, 굽경 6~7cm.	
접시	I	A			내저면 곡면, 완만한 곡선의 기벽, 구연은 내만하거나 직립, 높이 5~6cm, 구경 17~20cm, 굽경 5~6cm.
		B			내저면 곡면, 완만한 곡선의 기벽, 구연은 내만하거나 직립, 높이 3~4cm, 구경 14~15cm, 굽경 5cm 내외.
	II			내저면 곡면, 완만한 곡선의 기벽, 구연 외반, 높이 3~4cm, 구경 16~17cm, 굽경 5~6cm 내외.	
	III			내저면 편평, 볼륨감 있는 기벽, 구연 외반, 높이 4~5cm, 구경 12~13cm, 굽경 5cm 내외.	

③ 합발

합발은 대접에 비해 깊이가 깊고 기면은 굽에서 위를 향해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가다가 구연부 쪽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직립하거나 내만하는 형태이다. 최대경은 주로 신부에서 이룬다. 전체적인 기형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높이는 대략 10~12cm이고, 구경은 14~16cm내외로 추정된다.



1. I 형태 구연부 2. II 형태 구연부
도 3. 분청인화문합발

다. 발의 구연부 형태는 2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굽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오다가 거의 직립하는 형태에 구연은 살짝 외반하는 모습이다.(도 3-1) 두 번

째는 동최대경이 기벽의 중위쯤에 위치하고, 구연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내만하는 형태이다.(도 3-2)

④ 병

1점의 병이 수습되었다. 구연은 밖으로 크게 벌어지고 짧은 경부를 지나 전체적으로 구형에 가까운 동체부를 가지고 있다. 굽은 다리굽으로 낮고 넓게 깔았다. 장식은 귀얄기법을 사용했는데, 동체부에 2~3줄의 음각선을 돌려 문양대를 3단으로 구획한 후, 지그재그로 된 선(ㄸㄸㄸㄸㄸ)이 길게 종으로 그려져 있다. 이 병은 구경은 6.1cm, 기고는 16.3cm, 굽경 7.3cm이고, 굽에서부터 약 5cm 위로 올라가는 지점에서 동최대경을 이룬다.(도 4)



도 4. 분창인화귀얄문병

⑤ 호

무문의 호 1점이 확인되었다. 태토는 잡물이 다량 혼입된 점토가 사용되었고, 유약의 용융상태 또한 불량하다. 번조시 불의 온도가 불안정하여 기면의 색깔은 황갈색 혹은 회록색을 띤다. 구연은 밖으로 짧게 외반하고, 동체는 전체적으로 횡타원형이며 완만한 곡선으로 내경하는 굽으로 이어진다. 전체 높이는 9.3cm이고, 구경은 10.2cm, 굽경은 6.1cm이다.(도 5)



도 5. 분청무문호

⑥ 뚜껑

모두 3점의 뚜껑이 수습되었는데 각각 형태가 다르다.

첫 번째는 뚜껑이 완형으로 연결백자이다. 유색은 미백색을 띠고, 용융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뚜껑의 꼭지는 단면이 사각형인 낮은 원통형이고, 뚜껑의 상면은 끝이 약간 들린 형태이다. 내면의 중앙부는 편평하게 이어지다가 위를 향해 벌어지고, 3개의 사질 내화토 받침이 확인된다. 높이는 2.1cm, 최대너비는 8.4cm이다.(도 6-1) 두 번째는 분청귀얄문뚜껑으로 외면 전체에 귀얄칠이 되어 있다. 뚜껑 꼭지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다가 각을 지면 뚜껑의 상면으로 이어진다. 뚜껑의 상면은 완만한 직선으로 밖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형태이다. 내면의 중앙부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정면한 흔적이 확인되며, 편평한 중앙부를 지나 단을 지며 위로 벌어진다. 양끝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며 높이는 2.9cm이고, 최대너비는 약 13.2cm이다.(도 6-2) 세 번째는 뚜껑의 바깥 부분이 결실된 분청



1.연질백자 뚜껑 2.분청귀얄문뚜껑 3.분청귀얄문뚜껑

도 6. 뚜껑류

귀얄문뚜껑이다. 뚜껑의 상면은 귀얄분장이 되어 있고, 꼭지는 깎기로 조정되었으며 위에서 아래로 올수록 폭이 좁아진다. 뚜껑의 상면은 꼭지와 뚜렷한 각을 지며 밖으로 벌어진다. 내면은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져 있고 잔존 높이는 약 3.2cm이다.(도 6-3)

(2) 제기

① 炙楪



내

외

도 7. 분청인화 '炙楪'

『세종실록』 『오례의』 흥례서례 명기조에 등장하는 炙楪으로 추정된다. 삼도로 그려진 炙楪은 기본적으로는 접시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구연단의 형태가 특이하다. 구연단은

외반하고 구연단은 툽니모양(∨∨∨∨)로 깎아 성형하여 다른 접시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구연 바로 아래로는 초문대가 돌아가고 그 아래로는 상장안 요지의 대표 문양인 파상문이 깨끗하게 찍혀 있다.(도 7)

② 보(簋)

보는 벼 혹은 기장을 담아 제사의 중앙에 놓이는 장방형의 제기로 몸체와 뚜껑이 한 세트를 이룬다. 상장안 요지에서는 뚜껑으로 추정되는 일부 편이 확인되는데 기면은 직사선으로 내려오다 각을 크게 꺾으며 아래로 이어진다. 내외면은 귀얄로 장식되었고 손잡이는 결실되었다. 잔존하는 편으로 보아 전체적인 형태는 방형으로 구연단에는 일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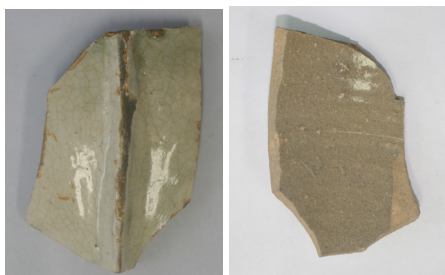
도 8. 분청귀얄문 '簋'뚜껑 편

14) 簋는 簋와 짝을 이루어 사용된 것인데, 특히 보는 稻(벼)·梁(기장 ; 좁쌀)을 담는 용도로 쓰였다. 금속으로 제작하기 전 보와 罍는 처음에 土器였고, 다음은 竹木器였다고 한다. (문화재관리국, 1967, 『朝鮮王朝의 祭祀-宗廟大祭를 中心으로-』, 125쪽.)

간격으로 돌기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도 8)

③ 회준(犧樽)

매우 소편에 해당하여 정확한 기종의 분류는 어려우나 잔존하는 편으로 추정컨대 회준의 일부분으로 판단된다.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분청덤병회준>(표 7-8)으로 미루어 보아 소의 등줄기 부분으로 보인다. 이는 내면에 유약이 고루 시유되지 않고 빈부분이



도 9. 분청덤병문 ‘犧樽’편

보이 점, 내면의 물손질 방향, 외면에 돌출된 등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 등,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소를 형상화한 회준으로 추정된다.(도 9)

④ 고족배(高足杯)

고족배는 원주형의 높은 굽다리가 완, 혹은 대접을 받치고 있는 형태로, 중국에서도 원대에 들어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기형이다.¹⁵⁾ 이 체계는 고려 말에 몽고의 영향으로 제작된 말위에서 사용했다는 의미의 마상배와 혼용하여 쓰고 있으나 고족배의 주 용도는 몽고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술잔이 아니라 라마교의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술이나 과일, 쌀 등을 담아서 받치거나 寺墓의 主佛 앞에 놓이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다.¹⁶⁾ 본고에서는 기형의 특징에 따라 ‘고족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도 10. 백자고족배

구연은 거의 직립하는 듯 살짝 외반하고,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부는 원주형으로 내려오다가 각단 가까이에서 ‘八’자상으로 벌어진다. 각부의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를 받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높이는 13.2cm이고,

15) 朱伯謙, 1998, 『龍泉青瓷簡史』, 『龍泉青瓷研究』, 北京:文物出版社, 26쪽.(김윤정, 1998, 『고려후기 상감청자에 나타난 원대자기의 영향』,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177쪽, 주63 참조)
16) 陳克論, 1999, 『多元文化因素對元瓷造型影響簡論』, 『中國陶瓷全集』10 元(上), 上海:上海人民美術出版社, 22쪽, 고족배는 중요한 전례에서만 사용되었던 특수한 용기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한다.(김윤정, 2003,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기 상감청자에 나타난 원대자기의 영향』,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39쪽, 주121 참조)

구경은 17.7cm, 저경은 4.1cm이다.(도 10)

상장안 요지에서는 분청사기를 주로 생산하였고, 그 기종은 대접과 접시 등의 생활기명이 중심을 이루며 그 외에 호, 병, 뚜껑도 확인되었다. 기장문화원에서 수습하여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는 분청인화파상문‘蔚山長興庫’명접시와 분청귀얄耕負祭’명접시 등 명문이 새겨진 것도 있다. 그리고 소량이지만 분청체가 확인이 되고 백자는 출토 예가 적어 정확한 생산 기종은 알 수 없지만 고족 배¹⁷⁾와 뚜껑 등의 출토 예로 미루어 보아 일반 반상기뿐만 아니라 특수 기종의 생산도 이루어졌다. 백자편은 소량이며 대부분 연질이다. 또한 이곳의 백자의 특징은 백자 태토로 그릇을 성형하고 분청기법으로 장식한 그릇을 생산하였다. 이는 분청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파악되며,¹⁸⁾ 분청사기와 함께 한 가마 안에서 번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문양

(1) 상감·인화

① 초문

구연부에서 확인되는 초문은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炙櫟과 같은 제기 혹은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에서만 확인되는데 선문으로 문양대를 구획하고 그 안에 사선으로 누운 선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외의 그릇은 대부분 선문을 돌려 구연부를 장식하고 있다.

② 파상문

주문양으로 대부분 파상문이 나타난다. 파상문은 다른 문양과의 구성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먼저, 첫 번째는 구연부에 초문이 시문되고, 그릇의 내·외면에 파상문이 전면으로 함께 인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은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와 炙櫟 등 중요한 기물에서만 이러한 수법이 이용된다. 두 번째는 내면 구연부에는 2~3조의 선문이 돌아가고 그 아래 기벽 가득 파상문을 돌리고 외면에는 귀얄로 백토를 칠하여 장식하였다. 대부분의 그

¹⁷⁾ 고족배는 마상배, 혹은 酒杯로도 불리우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조선도자명고에서는 이를 주배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주배(酒杯)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개 잔대(杯托)가 있으며 굽은 일반적으로 높다. 심한 경우는 지나치게 높아서 불안정하므로 다리를 손으로 쥐는 것이라 생각하여 세속에서는 마상배(馬上盃)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淺川巧, 1931, 『李朝陶磁名考』.)

¹⁸⁾ 백자 태토에 분청기법을 이용하여 장식한 그릇은 고창 용산리, 진해웅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고창 용산리 요지』;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2004, 『진해 웅천 도요지Ⅱ』.)

릇에서 이러한 장식기법이 이용되었다.

③ 소국화문

이 소국화문은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문양이다. 내저면의 중앙에 ‘蔚山長興庫’라는 명문 주변으로 도장을 이용하여 장식되고 있다.

④ 연판문

조선전기에 나타나는 분청사기 대접과 마찬가지로 내저면과 측사면의 경계에 나타나는 문양이다. 그러나 상장안 요지에서는 아주 소수의 그릇에서 연판문대가 확인되고 대부분의 그릇에는 몇 줄의 선문이 대신하고 있다. 상장안 요지에서 확인되는 연판문은 복판으로 잎 끝은 둥글게 표현이 되고 술부는 ‘1’자형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상장안 요지의 도자편에서 확인되는 상감·인화 기법의 문양은 <표 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2. 접시와 대접의 상감·인화 기법 문양

	
	2.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 구연부 문양 세부 그림(초문)
	
	3.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 주문양 세부 그림(파상문)
1.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 내면	
	4.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 내저 중앙 문양 세부 그림(소국화문)
	
5. 분청인화파상문대접 내면	6. 분청인화파상문대접 내저면 경계 세부 그림(연판문)

(2) 귀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장안 요지의 도자편들은 외면 구연아래 3~4cm 가량 칠해 장식된다. 혹은 '耕負祭'명접시에서는 외면은 다른 그릇들과 마찬가지로 3~4cm가량 귀얄칠이 되어 있고 내면에는 그릇의 중앙부에 '耕負祭'라는 명문이 종으로 길게 음각되어 쓰여져 있고, '耕'자를 지나 그릇의 횡방향으로 귀얄칠을 짧게 하였다.(표 1-3) 이렇게 파상문과 함께 나타나거나 귀얄칠만을 하여 장식된 대접, 접시도 확인된다.(표 1-1·2·4) 이 외에도 뚜껑, 제기 簠 등으로 추정되는 기물 등 많은 기종에서 나타나는 장식기법이다.(도 6-2·3, 도 8)

(3) 덩빙

회준, 뚜껑과 같은 몇몇 기종에서 한정적으로 확인된다.(도 9) 상장안 요지에서 많이 등장하는 장식 기법은 아니다.

상장안 요지에서 나타나는 문양은 대접과 접시의 기종에 상관없이 내면은 구연에서 아래로 3~4조의 重圈文→波狀文→다시 2~3조의 선문 순으로 장식하고, 외면은 구연 아래에 3~4cm가량 귀얄 칠을 하여 장식한 그릇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구성이 이 유적에서 생산된 분청사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분청인화파상문 '울산장흥고'명접시와 炙椌 등 중요 기물은 내외면 모두 파상문으로 장식된 그릇도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면 전체를 귀얄로 백토 장식한 그릇도 보인다.

3) 제작기법

(1) 유태와 굽의 깎음새

상장안 요지 도자편의 태토는 양질과 조질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양질은 치밀질이고 색조는 밝은 회색을 띠며 수비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잡물이 소량 혼입되었다. 한편 조질의 경우는 외관상 보기에다 사립과 거묵한 잡물이 확인되며, 단면의 색조는 어둡고 거친 느낌을 주며 손으로 만졌을 때 우둘투둘한 사립이 그대로 느껴진다. 상장안 요지에서 수습된 분청사기 중 양질은 분청인화파상문 '울산장흥고'명접시와 炙椌 혹은 일부 대접과 접시에서만 보인다.

굽 접지면은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정면한 것 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유약은 시유한 뒤 굽 접지면을 닦지 않은 상태로 번조 하였다. 굽 안 바닥은 굽을 깎고 난 뒤 안 바닥 중앙을 도구를 이용하여 1~2회 정도 다졌다.

대접의 굽은 비교적 높고 내만하거나 외반하는 형태, 죽절굽 등이 보인다. 접시 역시 비교적 높은 형태이며 주로 외반하는 형태가 많이 확인된다.(표 3)

표 3. 대접과 접시의 굽 형태

대 접		접 시	
내만형 다리굽		외반형 다리굽	
죽절굽		직립 다리굽	

(2) 번조기법

상장안 요지 대접은 대부분 내저면과 굽 안 바닥에 태토빛음받침을 3~4개 받쳐 포개구이하는 수법으로 번조되었다. 접시는 내저면이 좁은 경우 맨 위에 놓아 번조한 것으로 보이고 내저면이 넓은 때에는 포개구이시 중간에 재입한 것도 확인된다.(표 4-1)

분청인화과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의 경우는 굽 안 바닥에 태토빛음받침 흔적이 3군데에서 확인되고, 기내면에는 가마의 벽체편과 잡물 등이 부착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상장안 요지에서 생산된 관사명분청사기는 공납용자기 입에도 불구하고, 따로 갑번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굽 안 바닥에 모래가 아닌 태토빛음을 사용한 것은 포개구이 번조시 맨 위에 놓고 번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표 4-2)

내저면에는 태토빛음 굽저지면에는 모래가 받쳐진 대접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것은 포개구이시 가장 아래에 놓고 번조된 것으로 보인다.(표 4-3)

백자 고죽배는 내저면에 받침 흔적이 없고, 각부의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가 확인되어, 번조시 맨 위에 놓아졌거나 혹은 갑번 한 것으로 보인다.(표 4-4)

표 4. 상장안 요지 출토 도자편의 번조 방법과 번조 받침



Ⅲ. 상장안 요지 도자편의 특징

1. 관사명분청사기의 문양구성

상장안 요지 분청인화파상문 ‘울산장흥고’ 명접시는 주문양으로 파상문이 등장한다. 이 파상문은 당시 경주부에 속한 지역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의 주문양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울산 역시 경주부에 속한 지역이다. 이러한 현상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알려진 제품 중 경상도 지명이 있는 작품을 위주로 문양 분석을 시도하고, 경상도의 안동도호부, 상주목, 진주목, 경주부에 속해 있던 각 지역 문양에서 그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주문양 이외에도 종속문양과 관사명의 시문 위치에서 다른 지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볼 것이다.¹⁹⁾ 분석 대상이 되는 유물은 <표 5>와 같다.

1) 주문양

(1) 국화문

분청사기에 나타나는 국화문은 그 크기에 따라 대국화문과 소국화문으로 나눌 수 있다. 커다란 국화문은 내저중앙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작은 소국화문은 기내외면의 동체부에 시문된다. 그리고 소국화문은 한 도장 안에 나타나는 꽃의 개수에 따라 단독소국화문과 연권소국화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권소국화문은 청자에서 볼 수 없는 새로이 나타나는 장식기법으로 한 도장에 여러 개의 동일한 문양을 일렬로 새기는 것이다.

(2) 연권우점문(승림문)·파상문

우점문은 흔히 고려시대의 운문이 퇴화되어 나타나는 양식으로 고려청자에서 운문은 주로 학문과 같이 사용되다 운문의 꼬리가 짧아지고 원형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소형화 되어져 조선시대 분청사기에서는 우점문과 삼원문으로 변해간다.

승림문이란 말 그대로 발을 잇은 것으로 즉, 돛자리 형태를 나타낸 문양이다. 그러나 이 문양은 우점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우점문을 연권소국화문처럼 도장에 새겨 효과적으로 문양을 장식하기 위한 것으로서 흩어져 있던 점들이 일렬로 표현한 것이라 판단된다.

파상문은 물결이 굽이치는 것과 같은 형상의 문양을 말한다.

¹⁹⁾ 본 논문에서는 경상도 지역명이 있는 공납용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분양분석을 하여 각 지역색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전국에서 확인되는 공납용 분청사기의 문양의 특징을 고찰한 논문도 몇 편 발표되었다. (허선영, 2007, 관사명 분청사기의 문양연구-內瞻寺/長興庫명 분청사기 전세품을 중심으로, 『경문논총』 창간호, 429~472쪽; 박경자, 2008,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미술사논단』 27, 95~121쪽.)

표 5. 경상도 지역명이 있는 분청사기 전세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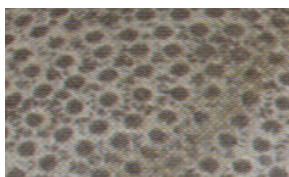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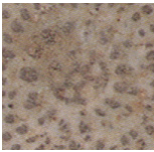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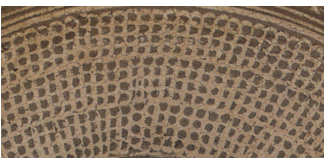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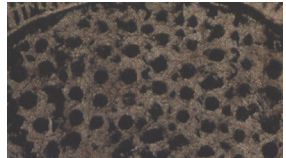




(단위 cm)

구분							
경주부	 <p>1. 분청인화울산장흥고명대접 기장 상장안 요지 출토</p>	 <p>2. 분청인화경주장흥고명대접 고7.5 구경20.0 굽경5.0 개인</p>	 <p>3. 분청인화경주장흥고명대접 고8.9 구경18.8 굽경7.0 동경국립박물관</p>	 <p>4. 분청인화경주장흥고명접시 고3.5 구경14.3 부산박물관</p>	 <p>5. 분청인화밀양장흥고명대접 고6.5 구경19.0 굽경6.3 부산박물관</p>	 <p>6. 분청인화밀양장흥고명대접 고5.5 구경16.4 굽경5.5 국립중앙박물관</p>	 <p>7. 분청인화밀양장흥고명접시 고3.5 구경10.0 굽경4.8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p>
	 <p>8. 분청인화양산장흥고명대접 고8.8 구경19.2 굽경6.4 해강도자미술관</p>	 <p>9. 분청인화양산장흥고명대접 고6.4 구경18.7 굽경5.8 리움</p>	 <p>10. 분청인화양산장흥고명접시 고3.8 구경15.5 부산대학교박물관</p>	 <p>11. 분청인화울산장흥고명접시 고3.3 구경16.5 부산박물관</p>	 <p>12. 분청인화청도장흥고명대접 고8.3 구경17.8 굽경6.3 호림박물관</p>	 <p>13. 분청인화인양인수부명대접 고8.7 구경19.0 굽경6.4 국립청주박물관</p>	 <p>14. 분청인화인양인수부명대접 고6.3 구경20.0 굽경6.3 동경국립박물관</p>
경주부	 <p>15. 분청인화인양장흥명접시 고2.7 국립청주박물관</p>	 <p>16. 분청인화장녕인수부명대접 고5.5 구경18.5 굽경6.0 부산박물관</p>	 <p>17. 분청인화홍해인수부명대접 고8.7 구경18.1 굽경 6.6 리움</p>				
진주부	 <p>18. 분청인화진주장흥고명대접 고7.5 구경18.4 굽경6.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p>	 <p>19. 분청인화김해장흥집용대접 고5.5 구경16.0 굽경5.5 호림박물관</p>	 <p>20. 분청인화김해장흥집용명대접 고8.0 구경17.5 굽경5.5 용인대학교박물관</p>	 <p>21. 분청김해장흥집용명접시 고3.5 구경14.6 굽경5.6 국립중앙박물관</p>	 <p>22. 분청인화진해인수부명접시 구경11.9 굽경4.8 국립중앙박물관</p>	 <p>23. 분청인화장원장흥고명접시 고3.5 구경14.0 굽경5.5 부산박물관</p>	 <p>24. 분청인화근남군장흥고명접시 고4.8 구경18.5 일본개인</p>
상주부	 <p>25. 분청인화금산장흥고남명대접 고4.8 구경19.0 굽경5.9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p>	 <p>26. 분청인화군위인수부명대접 고8.0 구경18.5 굽경6.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p>	 <p>27. 분청인화군위인수부명대접 고8.0 구경1.5 굽경6.0 리움</p>	 <p>28. 분청인화군위인수부명접시 고3.1 구경14.9 굽경5.6 리움</p>			
안동대도호부	 <p>29. 분청인화순흥장흥고명대접 고8.2 구경18.2 국립청주박물관</p>	 <p>30. 분청인화의흥장흥고명대접 고8.5 구경19.0 굽경6.0 부산박물관</p>	 <p>31. 분청인화예안장흥고명접시 고3.2 구경11.0 굽경4.8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p>				

(3) 집단연권문

집단연권문은 소국화문과 함께 주문양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문양이다. 연권 소국화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위로 나타나던 원문을 한 도장에 일렬로 새겨져 나타나는 문양이다. 인화문분청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양중 하나이다.

표 6. 관사명분청사기에 나타나는 문양

주문양		종속문양	
소국화문		초문	
		뇌문	
연권국화문		국화문	 
		소국화문	
연권연문		연권소국화문	
		연판문	
파상문		원문	
		조충문	

2) 종속문양

(1) 초문·뇌문

이 문양은 대체적으로 기종에 관계없이 구연부에 위치한다. 이 두 문양은 함께 나타나거나 초문만이 내외면에 시문되는데,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뇌문이 외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2) 연판문

연판문은 연화문에서 파생된 것으로 연 꽃잎을 한 장 한 장 나열한 것이다. 주로 그릇의 내저면과 외면의 동체에서 굽으로 이어지는 경계에 시문된다. 연판문의 형식은 꽃잎의 수 혹은 배치에 따라 중판, 단판, 복판으로 나뉘며 술부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분류할 수 있다. 분청사기 대접과 접시에서는 중판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대부분 단판과 복판이며 그 중에서도 복판으로 많이 나타난다.

(3) 조충문

조충문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새와 곤충이 함께 등장할 때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새와 곤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새 또는 곤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분청사기의 경우, 내저면 원권내의 국화문 가장자리에는 조충문대를 1줄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많다.

(4) 국화문

국화문은 주문양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종속문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종속문양으로 시문 될 때에는 내저면 안에 관사명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많다.

3) 관사명의 위치

경상도지역에서 등장하는 관사명분청사기는 관사명의 위치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A : 내저면에 배치된 경우
- B : 외면에 배치된 경우
- C : 내저면과 외면에 배치된 경우

C는 내저와 외면에 지명과 관사명을 각각 나누어서 시문 된 것이다. 이럴 경우 보통 내저에는 지명이, 외면에는 관사명이 배치된다. 그리고 외면에 나타날 때는 다수가 원권 혹은 한정된 구역에 한 글자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현된다. 굽안 바닥에 음각 혹은 인화로 관사명을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1455~1457년에 제작된 <분청인화'덕령'명접시>가 여기에 속한다.

주·종속문양, 관사명 위치에 따른 분류는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7. 경상도 지역명이 있는 분청사기의 문양분석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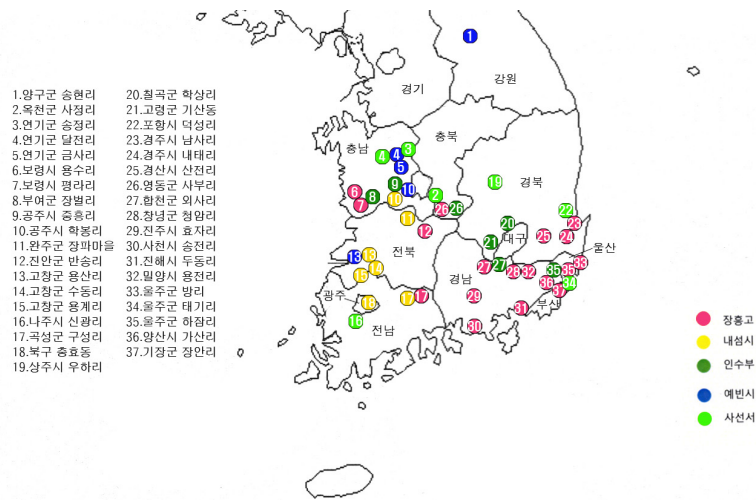
구분	번호	문양 유물명	주문양					종속문양							관사명 위치				
			소국 화문	연권 국화문	연권 원문	연권 우점문	파상 문	초문	뇌문	국 화문	소국 화문	연권 소국 화문	연 판문	원 문	조 충문	내 저	외 면	내 저 + 외 면	
경주부	1	粉靑印花破狀文“蔚山長興庫”銘대접					○				○						○		
	2	粉靑印花慶州長興庫銘대접			△		△										○		
	3	粉靑印花慶州長興庫銘대접		○					○		○	○					○		
	4	粉靑印花慶州長興庫銘접시			○						○								
	5	粉靑印花密陽長興庫銘대접			○				○				○	○					○
	6	粉靑印花密陽長興庫銘대접			○				○								○		
	7	粉靑印花密陽長興庫銘접시		○							○						○		
	8	粉靑印花梁山長興庫銘대접		○							○	○	○	○	○	○	○		
	9	粉靑印花梁山長興庫銘대접	△	△					○	○			○	○	○				○
	10	粉靑印花梁山長興庫銘접시						○	○			○					○		
	11	粉靑印花蔚山長興庫銘접시						○	○			○							○
	12	粉靑印花溝道長興庫銘대접			○				○			○		○	○	○	○		
	13	粉靑印花彥陽仁壽府銘대접			△	△	△		○		○		○	○			○		
	14	粉靑印花彥陽仁壽府銘대접			○				○			○					○	○	
	15	粉靑印花彥陽長興庫銘접시							○	○							○		
	16	粉靑印花宜寧仁壽府銘대접			○				○			○							○
	17	粉靑印花興海仁壽府銘대접	○						○				○		○	○	○		
진주목	18	粉靑印花晉州長興庫銘대접			○			○		○	○		○	○	○	○		○	
	19	粉靑印花金海長興庫用銘대접			○			○					○					○	
	20	粉靑印花金海長興庫用銘대접			○			○					○	○	○			○	
	21	粉靑印花金海長興庫用銘접시	○						○										
	22	粉靑印花鎭海仁壽府銘접시		○					○									○	
	23	粉靑印花昌原長興庫銘접시			△		△	○								○			
	24	粉靑印花昆南郡長興庫銘접시			○				○			○						○	
상주목	25	粉靑印花金山長興庫納銘대접		○				○	○			○	○	○		○			
	26	粉靑印花軍威仁壽府銘대접			○			○	○							○			
	27	粉靑印花軍威仁壽府銘대접			○			○	○			○	○	○		○			
	28	粉靑印花軍威仁壽府銘접시			○			○	○							○			
안동 대도 호부	29	粉靑印花順興長興庫銘대접		○				○			○	○				○			
	30	粉靑印花義興長興庫銘대접			△		△	○				○	○	○		○			
	31	粉靑印花禮安長興庫銘접시		○				○			○							○	

△:주문양이 두 가지 이상 사용되었을 경우

20) 1번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는 상장안 요지에서 출토된 것이고,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경주부, 진주목, 상주목, 안동대도호부 각 지역명 분청사기 중 다수가 등장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4)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 문양의 특징

경상도에서 지명이 등장하는 분청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경상도에서 제작된 공납용 분청사기는 ‘長興庫’ 혹은 ‘仁壽府’를 나타내는 명문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이러한 현상은 가마터에서 발견된 명문의 현황과도 일치한다.²¹⁾(도 11)



도 11. 관사명 분청사기 출토 현황

본고에서는 경상도지역에서 제작된 분청사기를 통해 각 지역을 경주, 상주, 진주, 안동지역으로 그룹을 나누고 각 지역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상장안 요지가 있었던 울산은 경주 그룹에 속하는데 이 지역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주문양, 종속문양, 관사명의 위치 등에서 어떠한 특징을 타나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주문양

경상도 지역 분청사기에 등장하는 주문양은 앞서 살펴본 문양 중에서 연권 원문, 국화문(단독국화문, 연권국화문), 파상문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이하게도 원문은 국화문처럼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종속문양으로

21) 반대로 전라도 지역은 대부분이 內瞻寺를 나타내는 명문이 많이 등장 하고 있다. 좀 더 문헌적이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공물을 받던 중앙관사가 지역별로 차이를 두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서 흔히 연주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으나 주문양으로 이용되는 원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²²⁾ 주문양으로서 국화문은 연권원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었던 문양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화문은 크게 단독으로 시문되거나 여러 개의 꽃모양이 한 도장 안에 집단으로 나타나는 등 2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경상도지역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에서는 단독으로 시문되는 예보다 연권국화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우세하다.

단독국화문의 형태는 1조의 둥근 음각선으로 화심을 표현하고 그 주위를 매우 짧은 직선형태의 잎이 돌아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표현된 예가 많다. 연권소국화문은 한 도장에 소국화문을 일렬로 배치한 것으로 주문양을 사용했다.

파상문은 세 번째로 많이 이용된 문양이다. 인수부명 분청사기에서는 그 사례가 드물지만 장흥고 분청사기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가 알려져 있다. 파상문이 시문된 예로는 慶州府에 속했던 지역 이름이 새겨진 예가 있다. 즉, 경주, 양산, 언양, 울산 등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주로 파상문이 많이 이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7-1·2·10·11·13·15) 그리고 파상문은 단독으로 내외면을 장식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문양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같은 경상도 내에서 제작된 분청사기라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지역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진주목의 <분청인화‘창원장흥고’명접시>(표 7-23)와 상주목에 속한 <분청인화‘의흥장흥고’명대접>(표 7-30)가 있다.

(2) 종속문양

경상도지역 제작 관사명 분청사기의 종속문양은 주문양의 단조로움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구연부에는 대부분 초문이 돌아가고, 내저면에는 연판문, 원문, 소국화문, 조충문, 증원문 등의 많은 단위문양들이 함께 장식된다. 이들 종속문양은 서로 어우러져서 내저면을 장식되는데 이 중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 문양은 대국화문과 소국화문이다.

대국화문의 경우 내저면의 중앙 한가운데에 시문되고, 그 주위를 연권원문(혹은 소국화문, 연권소국화문)이 장식된다. 다시 그 주위를 조충문이 둘러지는데 이러한 구성은 많은 분청사기에서 한 세트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양의 구성은 상주목에 속한 지역에서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주부 그룹에서 제작된 분청사기 <표 7>에서 보듯이 17점 중 11점이나 소국화문이 종속문양으로 등장한다. 하여 소국화문은 경주부에 속한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상장안 요지의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

²²⁾ 최근 김혜읍성의 복원사업으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김해장흥고’명 분청사기에서 단독의 원문이 시문된 예가 있었으나 아직 전제품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3) 관사명의 위치

앞서 관사명의 위치는 그 위치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A그룹은 내저면에 배치된 경우, B그룹은 외면에 배치된 경우 C그룹은 내저면과 외면에 배치된 경우이다. 관사명이 내저면에 등장하는 A그룹에 나타나는 지명은 慶州, 彦陽, 梁山, 昌寧, 蔚山, 密陽, 興海, 東萊, 義興등인데, 安東都護府 소속의 의흥을 제외하면 모두 慶州府에 속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경주부 그룹에 속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분청사기는 주로 그릇의 내저면에 관사명과 지명을 함께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B그룹에 나타나는 지명은 경주부의 경주, 양산, 창녕, 상주목의 성주, 고령, 함천, 선산, 금산, 진주목의 곤남, 진주, 안동대도호부의 군위 등 어는 특정지역이 아닌 전 지역에 골고루 제작되었다. C의 경우는 김해, 창원, 함안, 의령, 삼가 등의 진주목에 속한 곳과 경주부의 창녕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진주목에 속해 있다.²³⁾

이상으로 경상도지역에서 제작된 관사명분청사기의 문양분석을 통해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의 특징을 파악했다. 울산에 속해 있던 경주부에서 제작된 분청사기는 주문양으로 연권원문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연권소국화문, 소국화문, 파상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파상문이 주문양으로 등장할 때는 파상문 이외에 다른 주문양이 동반되어 내·외면을 장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속문양으로는 연판문을 대신하여 소국화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관사명의 시문위치는 주로 내저면에 지명과 함께 관사명을 새겨 장식한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주부의 특징은 분청인화파상문‘울산장흥고’명접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2. 상장안 요지 제기의 용도와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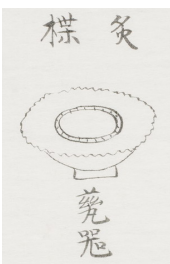






상장안 요지에서 확인된 제기는 炙樛, 보, 희준, 고죽배인데 이 중 문헌에 등장하는 炙樛, 희준, 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8)

『세종실록』 「오례의」 明器條에 삽도로 그려진 炙樛는 기본적으로는 접시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구연부의 모양이 특이하다. 明器條에 수록된 대부분의 그릇 명칭이 용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炙樛 역시

23) 조운주, 2003, 「관사명 분청사기 연구-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10~12쪽.

구운 고기와 같은 것을 올려놓던 접시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삽도에 보이는 炙楪의 가장자리 부분은 마치 툇니 모양의 장식을 한 것처럼 굴곡진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다른 접시류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炙楪과 유사한 예가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는 <분청인화승림문접시>(표 8-2)이다. 구연부가 이와 같이 툇니 모양으로 접시둘레를 장식한 형태의 분청사기 접시가 현재까지 소수 알려져 왔으나, 백자로 제작된 예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²⁴⁾

표 8. 상장안 요지 출토 제기의 종류

종류	상장안 요지	비교작품	圖說
炙接	 1. 분청인화炙楪구연부편	 2. 분청인화연권원문접시, 리움소장	 3. 『세종실록오례의』
篋	 4. 분청귀얄보(뚜껑)편	 5. 분청조화문보, 국립광주박물관소장	 6. 『세종실록오례의』
犧樽	 7. 분청담병희준편	 8. 분청담병문희준, 리움소장	 9. 『국조오례의서례』

²⁴⁾ 전승창, 1998, 『15세기 분청사기 및 백자의 수요와 제작성격의 변화』, 『미술사연구』12, 미술사연구회, 63~64쪽.

희준은 甘酒로 봄과 여름의 초헌례에 올리는 술을 담은 용도로 쓰인 제기이다.²⁵⁾ 그런데 그 형태에 있어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454년에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제기도설과 1474년에 간행된 『국조오례의서례』에 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장하는 희준은 기면은 심발형으로 굽은 높고 외경하며, 기면의 외면에는 측면향을 하고 있는 소 그림이 그려져 있다.(표 8-8) 그러나 『국조오례의서례』에서는 리움 소장의 <분청담병 문희준>처럼 소의 형태를 형상화했다. 따라서 상장안 요지의 희준은 1474년의 『국조오례의서례』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는 궤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기 중 하나이다. 그 만큼 많은 요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보는 벼 혹은 기장을 담은 장방형의 제기로 몸체와 뚜껑이 한 세트를 이루어 제상의 중앙에 놓인다.(표 7) 현재 발굴된 가마터 중 비교적 안정된 퇴적층이 확인된 광주 충효동 요지에서는 6개의 층위 중 몇몇 층위에서 보가 확인되었고, 각 층마다 각기 다른 기법으로 장식하고 있어 편년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에서 생산된 도자 제기는 어디에 공급하였을까? 이는 국가의 정식제사 중 지방 고을의 수령이나 제관이 주관하는 小祀를 지내는 장소에서 찾을 수 있다.²⁶⁾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안 요지는 17세기 이전까지는 울산지역에 속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울산지역의 국가의 정식 제사와 관련된 기사는 『世宗實錄』 卷76 19年 3月 13日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나라에서 행하는 울산군의 우불산(丕弗山)은 小祀이고, 묘의 위판은 종이를 바르고 우불산지신이라 쓰고, 소제관이 제사를 행하라.²⁷⁾

앞서 살펴 본 소사를 지내는 대상 중 명산대천이 있는데 이 중 한곳이 울산

25) 윤방언, 2002, 『조선왕조 종묘와 제례』, 문화재청, 124쪽.

26) 조선왕조는 성종 때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여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 등 국가 예제(禮制)의 여러 절차를 완성하였는데 오례(五禮) 중 으뜸은 길례로 여겼다. 국가의 정식 제사인 정사는 제사의 대상과 규모에 따라 大祀·中祀·小祀로 나뉜다. 대사는 宗廟·社稷의 제사, 中祀는 風雲雷雨·嶽海瀆·先農·先蠶·雩祀·文宣王·조선 단군(朝鮮檀君)·후조선 시조(後朝鮮始祖)·기자(箕子)·고려시조(高麗始祖)에 올리는 제사이며 小祀는 靈星·名山大川·司寒·馬祖·先牧·馬社·馬步·七祀·祭가 해당한다. 즉, 대사는 주로 국왕이 직접 주관하여 종묘와 사직에 올리는 제사였고, 중·소사는 왕이나 고을의 수령이 제관을 맡아 풍운뇌우(風雲雷雨) 같은 천신에게 지내는 제사와 문묘제사, 기우제(祈雨祭)같은 것으로 제사 규모가 대사에 비해 작았다.

27) 『世宗實錄』 卷 76 19年 3月 13日 癸卯條

“慶尙道 國行 蔚山郡丕弗山 小祀廟位版 塗紙書丕弗山之神 所在官行祭”

의 우불산 인 것이다. 명산대천과 관련된 기사는 『世祖實錄』 1卷 1年 7月 3日, 『世祖實錄』 25卷, 7年 7月 19日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황해도(黃海道)에 한계가 있어 관찰사(觀察使) 홍원용(洪元用)이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 명산대천(名山大川)²⁸⁾에 비를 빌기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²⁹⁾

예조(禮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내의 영덕(盈德)·청하(淸河)·상주(尙州)·선산(善山)·인동(仁同)·성주(星州)·대구(大丘)·경산(慶山) 등 고을은 지금 화곡(禾穀)이 이삭이 펴 때를 당하여 여러 달을 계속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점점 타고 마르는 데 이르니, 백성의 생활이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향축(香祝)과 폐백(幣帛)을 내려서 본도 관찰사로 하여 사전(祀典)에 실린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빌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³⁰⁾

위의 기사처럼 명산대천은 기우제와 관련하여 소사를 지냈고, 이 외에도 15세기대 『조선왕조실록』에는 경상도의 가뭄으로 인해 명산대천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라는 기사를 여러 건 살펴 볼 수 있다.³¹⁾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불신당은 군 서쪽 47리 원적산 아래에 있으며, 춘추로 향축을 내려 제사를 지내는데, 소사(小祀)이다”라고 했고,³²⁾ 『新增東國輿地勝覽』蔚山郡條 기록에는 “고을 서쪽 51리에 있다.” 라는 기사와 “우불산신

28)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큰 산(山)과 큰 내(川)를 일컫는 것으로 여기에 소사를 지내는 곳으로 울산의 우불산이 속해 있다.

29) 『世祖實錄』 卷 1 1年 7月 3日 丙子條
“黃海道旱 觀察使洪元用 請降香, 禱雨于名山大川 從之”

30) 『世祖實錄』 卷 25 7年 7月 19日 丁巳條
“禮曹據慶尙道觀察使關啓 道內盈德 淸河 尙州 善山 仁同 星州 大丘 慶山等邑 今當禾穀發穗之時, 連月不雨 漸至樵枯 民生可慮 請降香 祝 幣 令本道觀察使禱于祀典所載名山大川 從之”

31) 『太宗實錄』 卷 35 18年 6月 22日 辛丑條

『世宗實錄』 卷 96 24年 6月 14日 癸卯條

『文宗實錄』 卷 2 卽位年 6月 24日 丙申條

『世祖實錄』 卷 1 1年 閏6月 23日 丁卯條

『世祖實錄』 卷 3 2年 4月 26日 乙丑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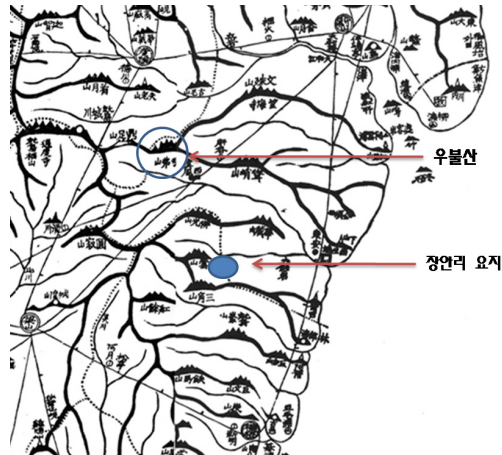
『世祖實錄』 卷 21 6年 8月 1日 甲辰條

『世祖實錄』 卷 24 7年 4月 4日 甲戌條

32) 『世宗實錄地理志』蔚山郡條

“弓弗神堂 在郡西四十七里圓寂山下 春秋降香視行祭 小祀”

사(于弗山神祠) 사전(祀典)에는 소사(小祀)라고 기록되었다. 매년 봄·가을로 향과 축문을 내려 하늘에 제사 지내고 가뭄에 비를 빌면 곧 효험이 있다.³³⁾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불산은 경남 양산시 웅상읍 신곡리 산1에 위치한 우불산신사³⁴⁾에서 찾을 수 있다.도 12 원래 이곳도 울산에 속해 있었으나 1906년 9월 울산에서 분리되어 양산 웅상읍이 되었다.



도 12. 『대동여지도』에서 살펴 본 상장안 요지와 우불산의 위치

따라서 소사를 지내는 명산대전중 하나인 우불산은 같은 군내에 있는 도기소·자기소인 상장안 요지에서 생산한 제기를 사용한 장소 중 하나 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V. 편년유물을 통해 본 제작시기의 검토

제작시기의 설정은 지표수습의 도자편을 위주로 분석을 시도하였기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수습되는 대접과 접시를 중심으로 기형, 문양, 문양의 구도, 제작기법 등을 살펴 구체적인 연대가 있는 명문자기 혹은 전국에서 출토되는 명문청자와 비교 분석하겠다. 또한 문헌 기록을 기준으로 접근하여 각 요지 생산품의 양식적 특징과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33) 『新增東國輿地勝覽』蔚山郡 祠廟條

“于弗山神祠 祀典載小祀每春秋捧香祝以祭天早雨應”

34) 목조건물로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187호로 지정되어 있다. 『삼국사기』32권에 ‘于火’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으로 해마다 봄과 가을에 기우제를 지내던 장소이다. 다른 문헌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부터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평안을 빌기 위한 제사를 해마다 음력 2월에 지냈으며, 가뭄 때 비를 빌면 특히 효험이 있었다고 전한다. 조선 인조 1년(1623) 사당 건물을 지었고 인조 22년(1644) 사당과 재실을 고쳐지었으며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쳤는데, 지금 있는 건물은 1918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1. 문헌자료

『경상도속찬지리지』는 『경상도지리지』의 속편으로 필사본이며 1책으로 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종1년(1469)에 편찬되었다. 체제는 『경상도지리지』와 같으나 토산공물의 품목으로서 자기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공납자기 생산지로서의 도·자기소에 관한 기록이다. 이 당시 府·郡·縣의 관청을 중심으로 방위와 지명, 생산품의 품등에 관한 기록과 함께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세종실록지리지』와 유사하다. 지금의 장안과 관련된 지명은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기장현조가 아닌 울산군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대로 『경상도속찬지리지』가 제작된 1469년에는 이곳이 기장현이 아닌 울산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에서는 “陶器所 磁基所 皆在郡南長安里 峴 品下”라고 하여 군의 남쪽 장안리현에서 하품을 생산한 도기소·자기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상도속찬지리지』가 제작되던 당시 울산군의 치소는 현재의 울산동헌자리로 현재 울산시 중구 옥교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장안이라는 지명이 있는 곳은 현재 기장군 장안을 장안리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마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오그랑터골이라는 지명은 이곳에서 요업 행위가 이루어 졌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9. 울산지역 도자기 공납의 변화

사료	편찬 연대	자기공납				도기공납				비고
		방위	지명	품질	수	방위	지명	품질	수	
경상도지리지	1425	도기 공납함
세종실록지리지	1454	郡北	齊餘沓里	下	1	郡北	齊餘沓里	下	1	1424~1432 조사
경상도속찬지리지	1469	郡南	長安里峴	下	1	郡南	長安里峴	下	1	
동국여지승람	1481	

위의 <표 9>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울산지역에서는 『경상도속찬지리지』가 제작되던 1469년을 전후한 시점까지 중앙에 공납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481년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울산에서 도자기를 공납하는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1467~1469년 사이에 설치된 관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요를 설치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조선왕실이

국내외로 사용할 최고급 백자가 대량으로 필요해졌기 때문인데 관요를 설치하기 전부터 조선이 도자기의 중요성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세종실록지리지』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세종연간에는 명의 조공요구가 있었고, 또는 明使 대접용으로 그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다. 세종 5년(1423) 明使 海壽의 자기 요구, 세종 6년(1424) 중국 사신 접대용 자기 확보의 필요성, 세종 7년(1425) 명 洪熙帝의 10卓分の 최상품 조선백자요구, 세종 11년(1429) 청화백자의 전래 등이 모두 조선 왕실소용의 백자 제작에 박차가 가해졌을 것이다.³⁵⁾

그러나 관요가 성립되자 전국에 산재해 있던 도·자기소의 공납이 갑자기 중단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원이 성립하고 난 뒤 일정기간 동안은 도·자기소의 공납은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도 지역의 경우 『경상도속찬지리지』에 등장하는 도기소·자기소에서 공납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외에 타 지역의 경우는 관사명 분청사기가 나타나지만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가마, 예를 들어 충남 연기군 달전리(禮賓), 충남 부여군 장벌리(仁), 전북 고창군 용산리(內資, 禮賓, 內贍)등의 가마가 이러한 예가 아닐까 추정해 본다.

표 10. 『慶尙道續撰地理誌』 陶器所 磁器所 기록

구분	도기소	자기소	추정 지역	비고	
慶州道	慶州府	陶器所 在任內安隸縣 淨惠里 杞溪縣代之洞里 北安谷 部曲島席里 皆品下	磁器所 在見谷里 勿伊里 大谷里 非伊里 皆品中		
	密陽都護府	陶器所 在府東栗洞里 品下	磁器所 在府東島山里 品下		
	大邱都護府	陶器所 在任內解縣汝乙里 品下			
	靑道郡	陶器所 在郡北大谷里 品下	磁器所 在郡東北谷里 品下		
	興海郡	陶器所 在郡北勝谷里 品下			
	蔚山郡	陶器所 磁器所 皆在郡南長安里峴 品下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蔚山長興庫’ 銘 분청사기 수습
	迎日縣	陶器所 磁器所 皆在縣東沙峴 品下			
	東萊縣	陶器所 在縣東史川里 品中	磁器所 在縣北收也里 品中		
	彥陽縣	陶器所 磁器所 在縣內瓮谷里及縣南大吐里 陶器 品下 磁器 品中		瓮谷里→ 울산 언양 태기리	‘司膳’, ‘慶州? 興’, ‘彥陽長興’, ‘彥陽仁壽’, ‘彥陽’, ‘仁壽’ 銘 분청사기 수습
	慶山縣	陶器所 在縣北栗亦村 品下	磁器所 在縣南豆也里 品下		

35) 『世宗實錄』卷 21 世宗 5年 8月 丙子條 “... 海壽求磁器 命許之”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8月 庚申條 “工曹 據平安道監司關啓 道內本無磁器匠 中國使臣來往 支應器皿 甚爲不潔 乞以忠淸道各官才熟 磁器匠二名 送于本道 傳習燔造 從之”(김영원, 1994, 『분원의 설치를 중심으로 한 조선전기 도자의 연구』, 27쪽, 주42) 참조

	구분	도기소	자기소	추정 지역	비고
安東道	安東大都護府	陶器所二 在府南仇旆村 豊山縣斗畚村 皆品下			
	榮川郡	陶器所 在郡東三歧里 品下			
	永川郡	陶器所 在郡東元堂里 品下			
	義城縣	陶器所 在縣東許於里 品下			
	眞寶縣	陶器所 在邑內 錢裏里 品下			
	軍威縣	陶器所 在縣南槲峴里 品下	磁器所 在縣中白峴里 於衣谷里 品下		
	義興縣		磁器所 在縣南安吐里 品中		
尙州道	河陽縣	陶器所 在縣西大谷里 品下			
	尙州牧	陶器所 在州西伐乙夜里 品下	磁器所 在任內中牟縣奴山里 品中		
	星州牧		磁器所 在州南黑水里 品下		
	善山府	陶器所 在府西上松里 品下			
	陝川郡	陶器所 在郡西兮谷里 品下	磁器所 在郡西獐谷里 品下		
	草溪郡	陶器所 在郡東沙器所 品下			
	咸昌縣	陶器所 在縣西舍宇里 品下			
	高靈縣		磁器所 在縣南下旆里 縣東仇彦里 皆品下		
晋州道	開寧郡	陶器所 在縣北馬山里 品下			
	晋州牧	陶器所 在玳龍浦 慈悲 俱品下	磁器所 在月背谷品中 中全品下		
	金海都護府	陶器所 在府東余次者 品下	磁器所 在府東甘勿也 品下		
	昌原都護府		磁器所 在府北仇叱浦里 品下		
	咸安郡		磁器所 在縣東代山里 品下		
	咸陽郡		磁器所 在郡南休知里 品下		
	宜寧	陶器所 在南上井里 及東正骨里	磁器所 在縣東火金洞 竝品下		
安陰縣	陶器所 在縣東 草也里 品下				

2. 편년유물

분청사기와 관련하여 제작시기를 알려주는 편년 유물에는 恭安·恭安府(1400~1420), 敬承府(1417~1418)·昆南郡長興庫(1421~1437)·茂珍內贍·德寧府(1455~1457) 등의 관사명 분청사기와 貞昭公主墓 出土 四耳壺(1424년 이전)와 月山大君胎壺(1462년 이전) 등의 유물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청사기들은 전체적인 문양의 구성과 문양형태, 기형 등에서 어떠한 유사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안 요지에서 확인되는 유물의 제작연대를 알려줄 만한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상장안 요지 유물의 전체적인 양상과 제기 등의 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상장안 요지 생산품의 제작시기를 밝혀보고자 한다.




1) 광주 충효동 요지 출토유물

광주 무등산의 충효동 일대에는 14세기 말부터 17세기에 이르는 분청사기

와 백자가마터가 분포되어 있고, 충효동 분청사기가마터는 1963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되었다.³⁶⁾

비록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지역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분청사기와 백자의 생산시기, 장식기법의 변화양상, 시기 등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안리 유적에서 확인된 유물의 출토양상과 장식기법, 백자의 등장, 제작수법 등

표 11. 광주 충효동 요지 퇴적층별 특징

층위	제작시기	출토 유물 성격	편년유물
E2-W1 지역	1424 ~1432	소량의 청자와 분청사기 모두 갑번의 최고급품	 '茂珍內瞻'명 (1430~1450) 분청사기
W3지역	1450 ~1470년대	분청사기가 주류, 제작수법이 거칠어지고 대접과 접시류는 포개구이 됨	
W2지역 9~7층		분청사기-생산품의 대부분 차지함, 갑번 발견되지 않음, 상감·박지기법 생산 줄어들음, 조화기법 늘어남 백자-생산시작, 모두 갑번	 '德寧府'명 분청사기와 문양의 짜임새 유사한 '德寧'명 분청사기접시
W2지역 6층		분청사기-굽이 두꺼워지고 무늬가 간단해짐, 요업형태가 대량생산체제로 변해감, 상감·박지는 발견되지 않음, 조화와 인화가 주류를 이룸, 귀얄기법이 본격적으로 제작 백자-앞 단계보다 생산량 증가	
W2지역 3층	1470 ~1480년대	분청사기-귀얄기법의 증가 백자-앞 단계보다 증가	 '成化'(1477~1483)명 묘지
W2지역 2층	1480 ~16세기 초반	분청사기-인화기법은 생산되지 않음, 귀얄기법이 주류 백자-앞 단계보다 증가	

³⁶⁾ 국립중앙박물관, 1992, 『광주 충효동 요지-분청사기·백자가마 퇴적층 조사』; 국립광주박물관, 1993,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의 비교를 통해 상장안 요지 도자편의 제작시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15세기대의 편년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자기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다. 특히 국립광주박물관에서 1991년에 조사한 발굴에서는 7기의 가마유구와 3m에 달하는 퇴적구의 층위가 조사되어 15세기 분청사기 가마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퇴적구에서 자기의 작업기간과 제작기법 및 변천과정, 분청사기가 변화·쇠퇴하여 백자로 이행하는 과정을 밝힐 수 있는 6단계의 편년 기준을 알려 주었다. 1단계는 가장 아래에 있는 E2-W1지역 퇴적층위로 모두 갑변에 의한 최고급품으로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자기소로 추정된다. 그리고 ‘茂珍內膳’명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는데 광주는 1430년 茂珍郡으로 개명되고 1451년 정월에 光州牧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이 명문들은 1430~1450년까지의 연대를 갖는다. 2단계는 W3지역 출토품으로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고, 제작수법이 거칠어지고 대접과 접시는 포개구이 된다. 3단계는 W2지역 9~7지역에서 출토된 자기로 백자가 생산되기 시작한다. 백자는 모두 갑변에 의한 것이며, 1455~1457년의 제작시기를 가지는 ‘德寧’명접시와 똑같은 분청사기가 발견되었다. 4단계는 W2지역 6층으로 분청사기의 경우 상감, 박지기법은 소멸하고, 인화·조화기법의 분청사기가 증가하며 귀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5단계는 W2지역 3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귀얄분청사기의 증가와 함께 백자의 생산도 증가하게 된다. 이 층에서는 1477~1483년 사이에 제작된 ‘成化’명묘지편이 출토되었다. 6단계는 W2지역 2층에서 제작된 자기들로 인화분청사기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고, 백자가 주류를 이룬다.(표 11)

2) 광주 충효동 요지 유물과 상장안 요지 유물의 비교

장안리 유적에서는 명문 있는 분청사기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들로 편년을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제공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장안리에서 확인되는 도자편의 편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광주 충효동 가마터의 층위를 통해 알 수 있는 편년을 상장안 요지에 대입하여 그 결과를 얻고자 한다.







(1) 簠

簠는 벼를 담아서 祭床 중앙에 놓이는 장병형의 제기로 몸체와 뚜껑이 한 세트를 이룬다. 보가 출토되는 유적은 전국요지에서 확인이 되며 특히 15세기 중반 이후에는 지방에서 많이 제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1430년대 이후 동의 수급이 다소 원활해짐에 따라 중앙에서는 銅製 제기를 사용하고 지방에서는 계속하여 도자제기를 사용하게 된다. 이 중 대략의 제작시기가 추정 가능한 유물로는 충효동에서 출토된 보가 있다. 충효동 가마터 W2

지역 3층에서는 1477년이 상한인 ‘成化’명 묘지편이 출토 되어 편년이 가능하다. 장안리에서 출토된 유물은 내외면에 모두 귀얄칠만으로 장식되어 있고 별다른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의 내용은 <표 12>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상장안 요지에서 출토된 簠의 형태는 『世宗實錄』 『五禮儀』 『祭器圖說』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이는 ‘祭器圖說’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길례용 분청사기에 어떤 특별한 제제가 가해지지 않자 그 변화가 계속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³⁷⁾

표 12. 광주 충효동 요지와 상장안 요지출토 簠의 편년

시기	형태	문양	충효동 요지 유물	상장안 요지 유물
1420~1450년대	장방형의 몸체, 투공 있는 손잡이와 작은 장식, 굽은 톱니모양으로 처리, 뚜껑 역시 장방형, 양쪽에 고리 달린 톱니형의 장식, 각면 모서리는 각지게 처리, 끝이 날카로움	뇌문, 물결문, 연판문 주로 사용,	 E2지역 출토	
1450~1460년대	몸체 각 면의 모서리가 완화, 양쪽의 손잡이가 장식대와 같이 변하거나 없어짐 뚜껑의 고리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톱니형 장식의 끝부분이 무더짐	뇌문이 커지고, 물결문의 개수가 줄며, 굴곡은 심해지거나 혹은 느슨해짐, 2단으로 시문되던 것이 1단으로 처리, 과장과 생략이 나타나며 단순화됨,	 W2지역 8층 출토  W2지역 8층 출토  W2지역 7층 출토	
1460~1470년대	장방형의 형태는 유지, 전체적으로 곡선 위로의 형태로 바뀜, 일반적인 굽의 형태도 나타남, 손잡이와 장식들은 길고 짧은 대와 같이 변함	문양이 거의 사라지고 간혹 나타난 문양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변형된 형태를 보임.	 W2지역 6층 출토	

³⁷⁾ 정소라, 1999, 『조선전기 길례용 분청제기 연구-충효동요지 출토유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23, 한국미술사학회, 26쪽.

(2)犧尊

희준은 『세종실록』 『오례의』 제기도설의 모습에서 형태상 변화가 생겨 『國朝五禮序例』(1474)에서는 상형으로 나타난다. <표 13>의 제기도설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종실록』 『오례의』에 나타난 희준은 높은 굽 위에 발형의 그릇이 없어져 있고 그릇의 외면에 소의 그림이 있다. 반면 『國朝五禮序例』의 희준은 소를 직접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희준의 형태 변화는 충효동 출토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세종실록』 『오례의』 편찬시기에 형성되었다고 추정되는 W2지역 8층에서는 발형의 희준이 출토되었고 『國朝五禮序例』의 편찬시기에 형성된 W2 지역 3층에서는 상형의 준이 발굴되었다.³⁸⁾ 상장안 요지에서 수습된 희준은 『國朝五禮序例』의 희준과 유사한 형태로 추정된다.

표 13. 상장안 요지 출토 희준의 편년

시기	형태	제기도설	충효동 요지 유물	상장안 요지 유물
1450~1460년대	높은 굽 위에 발형의 그릇이 없어져 있고 그릇의 외면에 소의 그림이 그려진 희준의 형태이다.	 『세종실록』 『五禮義』	 W2지역 8층	
1460~1470년대	소의 형태를 직접 형상화하여 나타난다. 몸체는 장군과 비슷하다. 덩병 기법만을 사용하여 장식한다.	 『國朝五禮序例』	 W2지역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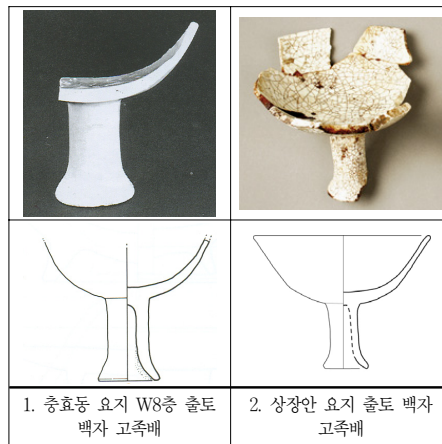
(3) 백자 고죽배

15세기 대에 지방의 가마에서 생산된 백자 고죽배는 흔히 출토되는 유물이 아니다. 지금까지 무등산 충효동 요지의 W2지역 8층과 상장안 요지에서 수습된 유물이 전부이다. W2지역 9~7층에 이르는 층위에서는 1455~1457년까지 존속한 ‘덕령’명이 새겨진 분청사기접시와 크기, 형태, 무늬 등이 같은 접시가 출토되

³⁸⁾ 우경미, 1996, 『분청사기의 새로운 기형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58~60쪽 ; 정소라, 1996, 『조선시대 도자제기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60~61쪽.

었다. 그 다음 단계인 W2지역 6층에서는 편년 유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W2지역 3층에서 1477년에 제작된 ‘성화’묘지편이 나왔다. 따라서 충효동 요지 퇴적층에서 1455~1470년경의 자기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충효동 요지 출토 백자 고족배와 상장안 요지 출토 백자 고족배는 모두 연질상태이고 굽바닥은 유약을 닦은 후 모래를 깔고 번조하였다. 충효동 요지의 유물은 구연이 잔존하지 않아 정확한 기형의 차이를 알 수 없지만, <도 13>의 도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부의 형태는 윗부분은 원통형으로 일정한 너비로 내려오다 각부의 끝에서 밖으로 반전되는 형상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도 13. 광주 충효동 요지 출토 고족배와 상장안 요지 출토 고족배

3. 상장안 요지의 제작시기

이상으로 광주 충효동 요지의 각 층위별 특징과, 『경상도속찬지리지』울산군 조에 등장하는 도기소·자기소에 위치, 그리고 상장안 요지에서 제작된 제기류를 광주 충효동 요지 출토 유물과 비교해 보았다. 특히, 簠·犧樽의 형태변화, 백자 고족배의 형태와 등장시기 등과 관련하여 충효동 요지의 퇴적층에서 출토된 유물과의 비교가 가능했다. 상장안 요지 출토 유물은 광주 충효동 요지 W2지역 8층·6층·3층 유물과 유사성이 있다. 또한 이들 층위는 다수의 분청사기가 차지하고 있고, 아주 소량의 연질백자가 생산되기 시작한 점, 백자 제기의 등장, 귀얄 기법의 등장 등의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상장안 요지 출토의 제기 보와 백자 고족배는 충효동 W2지역 9~7층의 유물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상장안 요지 유물의 제작연대는 대략 1450~1470년대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상장안 요지에서 수습된 유물의 전체적인 문양과 제작기법, 태토의 질과 유색, 굽의 깎음새와 굽 안 바닥의 정면 방법 등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다소 질이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현상은 1467~1469년에 설치된 관요의 영향으로서 분청사기의 질이 하락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상장안 요지의 운영 시기는 절대편년을 가진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편년을 추정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출토유물의 양상과 『慶尙道續撰地理誌』의 기록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15세기 중반에 공납용 분청사기를 생산했던 곳이라고 판단된다.

1469년에 간행된 『慶尙道續撰地理誌』蔚山郡條에 “陶器所鎡基所皆在郡南長安里峴品下”라는 기록을 통해 상장안 요지는 하품을 생산하던 도기소 혹은 자기소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청인화파상문 ‘蔚山長興庫’명 접시가 제작되어 중앙관청에 공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상장안 요지는 자기의 생산과 수급과정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장안 요지는 지방의 자기 생산에 대한 흐름과 백자의 생산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장안리 상장안 요지에서 수습된 도자편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 그 제작시기를 살펴보았다. 요지는 후대의 훼손으로 인해 현재 가마 유구의 현상 파악은 어려웠으나 수습된 다량의 도자편 분석을 통해 이들 유적의 조업시기 및 도자편의 편년연구는 가능하였다.

장안리 상장안 요지에서 출토된 일상기명은 대접과 접시가 중심을 이루고, 그 외에 병·호·뚜껑·합발 등이 확인되었다. 제기는 炙樑·희준·보·고족배가 수습되었다. 문양 장식은 상감, 인화, 귀얄, 덩병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굽은 기종에 관계없이 다리굽이 많다. 번조방법은 태토빚음과 모래 받침을 사용하여 포개구이를 하였다. 그러나 제기와 관사명 분청사기는 갑발을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번조시 가장 위에 놓고 번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안 요지의 도자편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분청인화파상문 ‘울산장흥고’명접시의 등장이다. 이러한 지역명+관사명 분청사기는 공납되는 도자기의 수와 질에서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분청인화파상문 ‘울산장흥고’명접시의 주문양인 파상문, 보조문양인 소국화문과 내저면에 위치한 지역명+관사명은 울산지역이 속한 경주부에서 제작된 관사명 분청사기의 특징과 일치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제기의 등장이다. 지방의 제기 제작은 銅의 부족과 관련이 있었으며, 상장안 요지에서 제작된 제기는 국가 제사의 하나인 소사를 지내던 우불산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도자편의 제작시기는 기형·문양·제작기법 등의 분석을 통해 접근하되, 구체적인 연대를 가지거나 안정적인 층위에서 확인된 유물과의 비교, 문헌기록 등을 바탕으로 각 요지의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추정하였다. 상장안 요지는 안정된 퇴적층에서 확인된 광주 충효동 요지의 6개 층위를 통해 밝혀진 유물의 양상, 그리고 제기형태의 변화를 통해 제작시기를 판단하였다. 상장안 요지 출토 유물은 簠·犧樽의 형태변화, 백자 고죽배의 형태와 등장시기 등과 관련하여 충효동 요지의 퇴적층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교 할 때 1450~1470년대에 해당하는 W2 지역 8층·6층·3층 유물과 유사성이 보였다. 또한 상장안 요지는 1469년에 제작된 『경상도속찬지리지』의 울산군조에 등장하는 도기소와 자기소로 추정됨으로 상장안 요지 유물의 제작연대는 대략 1450~1470년대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한국 도자사에 있어 지방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특히 경상도지역 도자사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가운데 기장 지역 요지가 확인되었고 도편분석을 통해 편년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상장안 요지는 도자사적인 연구에 있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는 기장 지역의 도자사, 나아가 경상도 지역에서 조사된 도요지에 대한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기준이 되었고, 뿐만아니라 『경상도속찬지리지』울산군에 기록된 하품 도기소·자기소를 찾음으로서, 경상도 지역사 연구에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투고일 2010년 7월 20일 |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8일 ■

참고문헌

史料

-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大東地志』

報告書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기장 도예촌 조성을 위한 장안읍 일대 정밀지표조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
국립광주박물관, 1993, 『무등산충효동가마터』.
_____, 2002,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도요지』.
국립전주박물관, 1997, 『全北의 朝鮮時代 陶窯址』.
국립중앙박물관, 1995, 『광주 충효충효동-분청사기, 백자가마 퇴적층 조사-』.
김영원, 1996, 『전주의 조선시대 도요지 ; 조선시대 분청·백자요지』, 국립광주박물관.
위덕대학교박물관, 2000, 『울산대학교박물관, 울산 ‘언양자기소’ 지표조사보고서 -울산군 산동면 하잠리 도요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영동 사부리·노근리 도요지』.
_____, 2004, 『보은 적암리 분청사기요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울산 고지평 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고창 용산리 요지』.

單行本

- 강경숙, 1989, 『분청사기연구』, 일지사.
_____, 1989, 『한국도자사』, 일지사.
_____, 2000,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_____, 2005, 『한국도자기가마터 연구』.
강대규, 김영원, 2005, 『도자공예』.
김영원, 1995, 『조선전기 도자의 연구-분원의 설치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 _____, 2003, 『조선시대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 강만길, 1984, 『조선시대상공업사연구』, 한길사.
- 방병선, 2005,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 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윤용이, 1993,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 정양모, 1991,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 이재룡, 1999, 『조선전기 경제 구조연구』.
- 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국사』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 _____, 1994, 『한국사』24, 조선초기의 경제구조.
- 기장읍지편찬위원회, 2005, 『機張邑誌』.
- 기장군, 기장군지 편찬위원회, 2001, 『기장군지』上·下.
- 문화재관리국, 1967, 『朝鮮王朝의 祭祀-宗廟大祭를 中心으로』.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부산지명총람』제8권.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釜山市史』제4권.
-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한국고전 용어사전』4.
- 홍희유, 1989, 『조선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 _____, 1991, 『조선수공업사』, 백산자료원.
-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울산광역시사』.

圖錄

- 경북대학교박물관, 1998, 『경북대학교박물관도록』.
- 계명대학교박물관, 1998, 『김산군의 관아와 객사유적 발굴유적 특별전』.
- 고려대학교박물관, 1989, 『陶磁器名品圖錄』.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 국립중앙박물관, 1997,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진주박물관, 2004,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 국립청주박물관, 2003, 『김연호 기증문화재』.
- 국민대학교박물관, 2006, 『국민대학교 박물관 소장유물 도록』.
- 대구대학교박물관, 1991, 『대구대학교박물관도록』.
-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90, 『東洋陶磁の展開』.
- 부산박물관, 2006, 『소장품 도록』.
- 삼성미술관, 2004, 『Leeum-고미술』.
- 숙명대학교박물관, 1992,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소장 명품도록』.

용인대학교박물관, 2005, 『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분청사기 -附 ; 부안 우동리요 출토품』.
 조선총독부, 1935, 『조선고적도보』18.
 중앙일보사, 1979, 『분청사기』, 『한국의 미』③.
 해강도자미술관, 1990, 『해강도자미술관』.
 호림박물관, 2004, 『호림박물관 소장 분청사기명품전』.

論文

강경숙, 1985, 『분청사기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4, 『세종실록 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연구 -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02, 한국미술사학회.
 _____, 1997,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에 있는 자기소 도편의 특징 -경기도와 충청도의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 『고고미술사론』5,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_____, 2001, 『광주 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김영원, 1980, 『조선조 압인분청의 편년적 고찰-광주 금곡리 출토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_____, 1982, 『조선전기 분청과 상감백자에 관한 연구-문양과 기형을 중심으로』, 『고고미술』153호, 국립중앙박물관.
 _____, 1995, 『세조~성종년 간의 분원의 설치와 도자양식의 변천』, 『미술사논단』2, 성강문화재단.
 김윤정, 2007, 『15세기 朝·明 궁정용 자기의 제작 체제와 관리』, 『미술을 통해 본 동아시아』, 중국사학회 제 55회 학술발표회.
 박경자, 2005, 『분청사기 명문 연구』, 『강좌미술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_____, 2006, 『貢納用 분청사기의 운송과 명문-경상도 및 충청·전라도를 중심으로-』, 『전국역사학대회-역사에서의 중앙과 지방-』49, 역사학회.
 전승창, 1995, 『15世紀 朝鮮 粉靑沙器 · 白磁의 移行研究』, 홍익대학교석사학위 논문.
 _____, 1998, 『15세기 분청사기 및 백자의 수요와 제자성격의 변화』, 『미술사연구』제12호, 미술사연구회.
 정소라, 1996, 『조선시대 도자제기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_____, 1999, 『朝鮮前期 吉禮用 粉靑祭器 研究-忠孝洞窯址 出土遺物을 中心으로』, 『美術史學研究』223, 韓國美術史學會.

- 정정원, 1968, 『경남지방도자기의 연구 -도요지 및 그 출토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조영수, 2000, 『울산 하잠리 소재 조선초기 도요지에 대한 일고찰』, 울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조운주, 2003, 『관사명 분청사기 연구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3, 『慶尙南道彦陽地域の粉靑沙器窯址の新例-台機里窯址と出土遺物-, 『デアルテ』, 19.
- 성현주, 2002,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포곡요지의 성격 검토』, 『박물관연구논집』9, 부산박물관.
- _____, 2006, 『경상도지역 “명문” 분청사기 연구』,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심지연, 2003, 『경주 서부동 출토 관사명 분청사기 연구』,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안성희, 2005, 『조선시대 도자제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세진, 2006, 『공주 학봉리 철화 분청사기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경미, 1996, 『분청사기의 새로운 기형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애령, 1993,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변천연구-충청남도 공주군 연기군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황 구, 2006, 『기장의 분청사기와 매장문화재 활용 방안』, 『기장의 매장문화재 조사사례발표회』, 기장문화원.

Abstract

A Study on Ceramic Ware of the Area Sangjang, Jangri, Gijang

Hur, Sun Young

A research of earth surface was conducted by me from February to July 2007 on the subject of ancient formation of ceramic art villages at Gijang county, Busan. The research, though it was just a survey of earth surface, is a significant work since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ill now concerning pottery at Gijang area and reported officially to the learned circles.

From the pottery located at Janganri village was discovered 'Buncheong ware' that retains inscriptions such as 'Ulsan Jangheung Go(warehouse)' and 'Gyeongbu Je (festival).' In addition, utensils used in religious services such as 'Jajeop,' 'Hijun,' 'Bo' and 'Gojokbae' were confirmed through the Janganri pottery. The place seems identical to 'Janganri-hyeon' of Ulsan recorded in 『Gyeongsang-doSokchanJiriji』(geographical book published in Gyeongsang province) where low grade chinaware were produced.

The mentioned pottery was marred by posterity, so observation of its remained structure has become difficult. However, I decided that with the recovered slices, chronological research of the three remains is worth trying, so I brought it up as the object of my study.

To determine the production period of the potteries, I first reviewed the kinds and techniques of production, together with patterns and abnormalities of the slices. Bowls and dishes were focal points of my survey as they are kinds that have been recovered most so far. Other items such as ceramic slices and kiln tools were also investigated. However, I have encountered limitation in studying the whole composition of pattern since most of the excavated slices were small sized.

Nonetheless, I have classified them into main pattern and subordinate pattern based on general composition of patterns and their locations as well as their appearing ratio. As for production skill, I observed cutting shape of 'Yutae' (special oil painting) and bottom of the slices, their firing technique, whether they are 'Gapbeon' (high-grade product) or 'Pogae Gui' fired one, and what material was used as prop. As a result of my observing the ceramic slices from Gijang area, I came to know that the most prominent features of the three potteries lie in 'Yeondang Chomun' celadon porcelains from Sinri and Daeryong potteries, the 'Buncheong' chinaware (with inscription of authorities) from Janganri pottery, and the utensil production for religious service.

Through the above analysis, along with study of documentary records and comparison with other remains that were recovered from stable stratum or bearing dates, I could surmise the specific production period of each pottery. As for the pottery at Janganri, I have surmised its production period through shapes of the remains recovered from 6 stable strata of pottery at Chunghyo-dong, Gwangju city, together with changed forms of religious utensils. I was also given important hint from the records on chinaware potteries at Ulsan county described in 『Gyeongsang-doSokchanJiriji』.

As the result of my research I conclude that the pottery at Janganri started ceramic production somewhere between 1450~1470.

Key Words : Gijang, Janganri, Gyeongsang-doSokchanJiriji, Buncheong ware, Porcelain Works, Pottery Works